연기적 '진아'로서 인연 소중히

〈眞我〉

지금 이 세계戒

③ 세상이 불타고 있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법화경〉의 '비유품'에는 '화택삼거유(火宅三車喩)'라는 가르침이 나온다. 중생이 살아가는 삼계(三界)가 불타고 있으므로, 그 속의 중생을 살리기 위해 세 가지 수레로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뒤 더 뛰어난 백우거(白牛車)에 태워 일승(一乘)의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가르침이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불타는 집으로 비유하며,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태어난 순간부터 필연적 고통인 늙음, 병듦, 죽음에 사로잡혀 맹렬히 불타고 있다고 한다. 그 불타는 집은 언제라도 무너져 내려 우리를 덮칠 수 있기에 마냥 탐욕과 집착에 빠져 미련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현실에 눈뜨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법화경〉의 이 비유는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현재 지구 곳곳은 전쟁의 화마 속에 빠져들고 있다. 화택의 비유에서는 노병사로 인한 불이 우리 삶을 불태운다고 하지만, 지금 이 불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불 질러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법화경〉이 생겨날 당시에는 상상조차 못 했을 끔찍한 일을 지금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배워 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힘의 논리를 앞세우려 한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하고 손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하다못해 줄을 서더라도 '내'가 더 앞서야 하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거나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의와 도덕을 논하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자비를 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런 모습은 현실의 '나'와 인터넷의 '나'로 나뉘며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문제는 '나'가 이중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이다. 현실과 인터넷이 구분돼 지낸다면 괜찮겠지만, 결국 현실이든 인터넷이든 '나'는 한 명이다.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 살아 꿈틀대는 '내'가 모든 것의 귀결점이 돼야 하고,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그런 '나'에 대한 무거운 마음보다는 당장의 쾌락과 탐욕에만 빠져 사는 것은 아닌지 깊이 사유해 봐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폭탄과 미사일이 떨어져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실제 폭발은 아니지만 경제적 타격을 입어 삶이 폭발하는 경우도 일어난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전쟁을 남의 일처럼 여기며 오히려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다.

〈법화경〉에는 화택에서 나오게 한 사람들을 하나의 수레에 태워 안락의 깨달음으로 인도해 준다. 그러나 지금 불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더 큰불을 지르고 있다. 불에 탄 자리에는 잿더미만이 남는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도 잿더미가 되고 나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돼 버린다. 인간이 탐욕을 기본적 욕망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은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다. 그렇기에 오히려 그 욕망을 다스리고 자기 삶을 탐욕이 아닌 인간적 사유와 행동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탐욕의 불덩이로 남의 것을 빼앗는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불타 버리고 나면 결국 자신에게도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

〈범망경〉의 보살계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적 모습에 대해 계율로써 제지하고, 다시금 더불어 살아가는 자비의 행에 대해 설한다. 특히 10중계에서 뒤의 다섯 가지 계는 전부 다른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설하고 있다.

고통 속 불타는 삶 비유, 화택삼거유
현실에 번진 탐욕의 불, 전쟁 화마로

눈앞 쾌락·탐욕에 머문 삶 돌이켜야
〈범망경〉 보살계, 이기적 모습 제지

전쟁 중단 위한 뜻·용기·행동 필요
가족, 인연, 사회, 지구 귀하게 여겨야

우선 제6중계 '설사중과계(說四衆過戒)'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사람이 사람을 맘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7중계 '자찬훼타계(自讚毁他戒)'에서도 자신만을 내세워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이 두 계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자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이뤄진다고 여기는 아집(我執)에 대한 제지이며,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기(緣起)적으로 형성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제8중계 간석가훼계(慳惜加毁戒)는 자신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거나 인색하게 굴며 그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제9중계 진심불수회계(瞋心不受悔戒)는 다른 사람의 참회를 받아 줄 수 있는 관용을 지녀야 한다고 설한다.

이 두 계는 지금 자신이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더라도 그것을 통해 그를 억압하고 도리어 자신이 그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우월감을 경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언젠가는 자신도 잘못할 수 있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회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연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의 행동을 더욱 조심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히 화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10중계 방삼보계(謗三寶戒)는 불교인이 불교를 비방하고 그로 인해 삼보를 훼손해 결국 불교를 어려움에 빠뜨리기에, 지금 불교인이라는 자각을 갖고 불교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다.

이는 우리가 탐욕으로 지구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움을 상실시킬 수 있기에, 지구 공동체로서 함께 화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오늘날의 가장 절실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불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 명의 '나'로만 본다면 너무나 작고 미천한 힘이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세계와 지구는 '나'라는 한 명 한 명이 모여 이뤄진 전체이다. 내가 생각을 바꾸고 서원을 말하며 그것을 행동할 때 비로소 그 힘이 업(業)이 아닌, 법(法)이 되어 작은 하나의 톱니바퀴로써 전체의 큰 움직임을 만들게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지금 우리의 세상이 불타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먼 나라의 이야기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 아닌, 지금 나의 오늘에 피해를 주고, 나아가 내일의 나에게 그 화마가 덮쳐 올 것이란 걸 안다면 결코 그냥 그렇게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탐욕과 아집에 의한 전쟁이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는 생각, 오늘 나의 하루에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가까운 인연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행동이 필요한 지금이다.

화택에서 나온 사람들을 백우거에 태워 깨달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부처님과 보살님이다. 불교에서 부처는 바로 중생이고, 중생이 수행을 통해 부처로 변하는 것이다. 즉, 모두를 백우거에 태워 안락과 행복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나'와 '우리'인 것이다. 불교에선 영원불변의 절대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설한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나'로서 살아간다. 그럼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바로 가족과 인연과 사회와 지구에서 살아가는 '나'이고, 그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갖춰진 모습이 지금의 '나'인 연기적 '진아(眞我)'인 것이다.

내가 나를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듯, 나의 인연과 사회와 지구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나'는 그 안에서 존재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 있을 때 가치를 발하기 때문이다. 이제 불타는 세상 속에서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서원을 세우며 행동을 해야 할 때다. 그 불속에 다름 아닌 내가 불타고 있다. 다 타 버려 잿더미가 되기 전에 오늘 우리 손으로 자신을 이끌어 내어 화합과 자비의 백우거에 태워 내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